

# 장관급 후보에 민간까지… 은행연합회장 ‘거물들의 경연장’

오는 26일 차기회장 후보추천 논의 힘 있는 목소리 ‘관료출신’에 무게 김한 前 회장, 후보군으로 급부상

차기 은행연합회장의 인선절차가 오는 26일 시작된다. 최근 후보자군 물망에 민간 후보자도 가세하면서 물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관료출신 후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6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추천을 논의하는 킷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4대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0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례를 보면 은행연합회장은 행장들의 개별 후보 추천으로 회장후보군(룰리스트)을 만든 후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 차례 이사들이 만나고 이사회가 최종후



(왼쪽부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보를 추천하면 사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수순이다. 후보군 선정 등 회장선임과 정은 비공개로, 차기 회장은 현 김태영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 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으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 후보에서 민간출신 후보로 후보군이 확대된 셈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과 금융위원회장을 거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이다. 최전 위원장은 행사 25회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27회)보다 두 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현재 최전 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뒤 지난 8월부터 라이나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정무위원회 활동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3선 의원출신으로 정치권과 은행권 사이 조율을 이뤄낼 수 있다는 평가다. 민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

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한 전 JB금융 회장은 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김 회장은 금융그룹을 이끈 경험으로, 규제완화와 빅테크 기업들과의 규제 형평성 개선 작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김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토리 키재기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도토리 키재기식 규제로 성장을 막다보면 곧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출신 후보자보다 관료출신 후보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등을 비롯해 사모펀드 대책이 강화된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관료 및 정치권 인사의 인사충돌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 산업의 당사자로서 신임 은행연합회장 후보들이 금융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사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 직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노조 지부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승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라도 공직자 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데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취업제한 규정만 부각했다”며 “이는 과거 경력만으로 회장후보가 사전에 배제 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업계 최초 포모사본드 1억弗

**우리카드** 약 1160억원 본드 발행  
투자은행 BNP파리바 단독 주관  
국내기업 포모사본드 중 최저금리

우리카드는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1억달러(약 1160억원)의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란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현지 통화인 대만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 발행은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가 단독 주관을 맡았으며, 5년 만기 변동금리부사채로서 금리는 USD 3개월 리보에 1.00%를 가산한 수준이다. 해당 금리는 올해 국내 기업이 발행 한 포모사본드 중 최저금리 수준으로 됐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우리카드의 기업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통화이자율스왑을 체결해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제거했다.

또한 채권이 더욱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싱가폴증권거래소(SGX)와 타이페이증권거래소(TPEX)에 동시 상장해 유동성을 높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정부의 외평채 흥행 성공에 따라 우리카드가 여전사 최초 포모사본드 발행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대만 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한 점이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신한카드, KSI 신용카드 부문 11년 연속 1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신한카드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카드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신용카드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KSI는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가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KSI 신용카드 부문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돼,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명예의 전당에 현액됐다. 올해도 1위 기업으로 선정돼 11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통신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왼쪽)이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과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부문 1위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올해 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전담하는 ESG팀을 신설해 친환경 경영, 상생 경영, 신뢰 경영을 큰 축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새일을 시작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기업-지자체-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북광역새일센터가 함께 하는  
『기업체 협력망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① 기업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운영
- ② 여성인력 채용계획 청취 및 반영
- ③ 지역별 여성 구직풀 공유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업지원  
서비스제공

- ①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② 새일여성인턴제 지원사업
- ③ 여성친화기업 협약 체결 및 협판제작 지원

(구직자)  
경력단절예방

- ① 기업체 컨설팅 지원
- ② 직장문화개선 교육 지원
- ③ 직장적응 워크샵 지원

『기업체 협력망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표 054-650-799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일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www.gbnewjob.or.kr>